

“왜 수장고로 갔지” 잠들었던 대작이 깨어난다



박소빈 작가의 작품 ‘새로운 신화 창조’가 이노베이션을 새롭게 거친 교내 박물관 로비에 설치.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전시에 들어가게 됐다.

대학 박물관 로비에 15m에 달하는 작품이 내걸렸다. 마치 신화이야기라고 하는 풍경을 그대로 들인 듯한 착각과 거대한 크기 때문에 압도당한다는 반응이다.

2012년에 대학 측 제안으로 기증돼 14년째를 맞은 작품이었다. 하지만 잘 걸려있던 작품이 애초 기증자의 뜻과는 배치되게 결과론적으로 수장고로 가야만 했다. 작가마저 “왜 수장고로 갔지”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기증됐던 고석규 총장 시절(제6대 2010~2014) 당시 대학본부에 자리하다가 최일 총장(제7대 2014~2018) 시절 70주년 기념관에 옮겨져 전시되던 중 작가의 기증의도와 달리, 기념관의 내부 사정에 의해 2019년 수장고로 옮겨졌다. 거의 7년여 보관만 됐지 전시 또는 외부에 공개가 되지 못했던 셈이다.

이 작품이 작가의 모교인 목포대로 기증된다는 2012년 당시 고석규 총장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고 총장이 중국 대학교와 교류 협력차 왔다가 북경 798을 방문. 전시 중이던 박 작가의 작품을 접한 것이 계기가 됐다.

마침 글로벌하게 활동하고 있던 작가가 자신이 제작하고 있는 대학의 졸업생임을 알게 되고 작품으로부터 강한 인상을 받는데다가 작가의 작품이 이해가 쉬운 것만은 아닌데도 현대사를 전공한 고 총장이 예상치 않게 주시했던 듯하다.

작가가 구사하는 웅의 상징성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바다의 신으로서의 역할을 포함해 민속학적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까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더 크게 마음이 움직였던 것으로 보인다.

학교로 돌아온 고 총장은 작가에게 타

타임을 제안. 만난 자리에서 학교에 작품을 걸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그렇게 해서 북경에서 선보

된 공간에 세로로 새롭게 설치됐다. 특히 부작함한 공간 벽이나 사선 등이 아닌 세로로 설치. 하늘과 땅을 오르다는 개념을 포괄해 신화와 승천의 의미 또한 실현하게 됐다. 작품 크기가 무려 세로로 15m. 가로로 1m 50cm에 달하는 대작이다.

일본 하반기 전시 미팅을 위해 3박4일 일정으로 이동 중 잠시 한국에 들어와 1박을 한 박 작가는 지난 5일이 작품에 대

이어서 모든 스케줄을 뒤로 하고, 3개월을 꼬박 매달려 작업에 집중해야 했다. 웅(미르)을 비롯해 목포대, 서해안 시대, 동북아, 바다, 물, 승달산 등 자신의 작품에 투영한 실체들을 상기한면서 특별한 사유를 포괄해 제작. 기증한 작품으로 대학이 내세우는 가치와 부합되게 초집중을 했었다는 기억을 빠뜨리지 않고 들려줬다.

그러다가 수장고에 있던 작품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는 단초를 맞게 됐다. 2024년 박 작가의 광주시립미술관 전시 때 목포대 송철철 총장(제9대)이 전시 관람차 방문. 유일하게 목포대에 기증됐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게 되면서다. 이 자리에서 송 총장은 박 작가에게 “(자신도) 싶은 언짢았다”고 위로를 해줬다는 후문이다.

선의를 뜻으로 모교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택 기증됐으나 작가의 바람대로 대학 구성원과 일반방문객들에 공개되지 못했던 대작 ‘새로운 신화 창조’는 교내 박물관에 새롭게 자리를 잡게 되면서 목포대 내 명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소빈 작가는 오는 9월 일본 도쿄 VK 컨템포러리 갤러리 초대전을 앞두고 일본 현지를 방문했으며, 일본 전시 미팅에 뒤이어 오는 19일 귀국해 작품이 설치, 선보일 목포대박물관 재개관식(23일) 참석 등 2주간 머무르며 활동을 펼친 뒤 중국 북경으로 돌아갈 계획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북경 연구로 활동 박소빈 작가 ‘새로운 신화 창조’ 이노베이션 거친 목포대박물관 로비에 설치 선택 세로 15m에 달해... 23일 박물관 재개관식 때 공개

인 작품은 목포대로 올 수 있었다. 그러나 자리를 잡지 못하다가 지난 2월 27일 목포대 박물관 로비에 등지를 새롭게 틀 수 있게 됐다.

주인공은 중국 북경에 작업실을 두고 미국 등을 오가며 활동 중인 광주 출생 박소빈 작가가 그다. 앞선 내용은 그의 작품 ‘새로운 신화 창조’에 대한 이야기다. 좋은 취지로 기증은 됐지만 오랜 시간 자리를 잡지 못하다 이노베이션을 새롭게 거친 교내 박물관 로비에 설치.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전시에 들어가게 됐다.

로비에서 보면 1층에서부터 3층까지

한 설명을 잊지 않았다.

“‘새로운 신화 창조’는 작품이 예시하듯 서해안 시대를 목포대학교가 선도하며 동북아의 장을 여는 것이 대학측으로서는 어떤 새로운 신화 창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구요. 그리고 그 웅과 신화의 시작점이 목포대가 되기를 바라고 중심이 돼 펼쳐나가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웅과 여인이 혼연 일체가 돼 거점인 북경을 망라, 목포대가 주도해 다시 새로운 이상의 세계로 펼쳐 나가자는 것으로 피날레를 장식하는 모습이에요.”

박 작가는 그 당시 학교에 기증할 작품

‘광주아트페어’ 국내외 우수 갤러리 찾아오

광주문화재단, 참가 갤러리 모집 30일까지 접수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10월 열리는 ‘2026 광주국제아트페어’(이하 아트광주)에 함께할 국내외 우수 갤러리를 공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제17회를 맞이하는 아트광주는 지역 미술계의 자생력을 높이고 세계적인 현대미술의 흐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호남 최대 규모의 아트페어다.

이번 행사는 오는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A·B·C홀)에서 진행된다. 개막식은 10월 22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본 전시 앞서 VIP 프리뷰 등 다양한 사전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광주문화재단 배운한 사무처장은 “올해 아트광주는 광주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컬렉터와 시민이 함께 즐기는 품격 있는 미술 정서가 될 것이다. 특히 글로벌

미술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하고 작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갤러리는 광주문화재단 누리집(www.gjcf.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오는 30일까지 이메일(artgwngju.official@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갤러리에게는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도록 제작 등 풍성한 혜택이 제공된다. 지역 및 참가자들을 위한 숙박 지원하며, 갤러리당 부스 2개 이상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062-670-7423, 7425.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스테인드글라스, 빛과 색의 향연 펼쳐

김인중 강연·공연 결합 무대

빛이 스며든 창을 통과해 색이 흐르고, 그 색은 다시 음악으로 변한다. 눈으로 본 빛이 귀로 들리는 순간, 예술은 하나의 감각에 머물지 않는다.

빛의 화가로 불리는 김인중 화가의 예술세계를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강연과 공연이 결합된 무대가 마련된다. ‘스테인드글라스, 빛과 색의 판타지’라는 이름의 이번 행사는 강연과 음악회를 하나로 엮은 ‘Lecture + Concert’ 형식으로, 관객에게 시각과 청각을 넘나드는 복합적인 예술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나주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사)문화공동체 무지크바이이 주관으로 오는 22일 수요일 나주 한국전력공사 한빛홀에서 열

리는 이번 무대는 스테인드글라스를 중심으로 한 김 화가의 작업 세계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자리다. 김 화가는 회화와 도자기, 유리공예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조형 언어를 구축해온 작가로, 서예적 필획과 먹의 농담, 여백의 미를 현대적인 색채로 풀어내는 것이 특징이다. 그의 작품은 단순한 시각적 아름다움을 넘어 ‘보이지 않는 존재의 빛’을 드러내는 작업으로 평가 받는다.

행사에서는 특히 김 화가의 예술 철학인 ‘빛성정신’을 중심으로 그의 작업이 지닌 영적 의미와 사회적 확장성에 대해 다룬다. 스테인드글라스가 중세 유럽 성당에서 성서 이야기를 전달하던 종교미술에서 출발해 오늘날 공공예술과 도시재생의 핵심 콘텐츠로 확장되는 흐름도 함께 짚는다. 실제로 김 화가의 작품은 유럽 45여



개 성당에 설치돼 있으며, 프랑스의 한 성당은 그의 작품 설치 이후 관광 명소가 부상하기도 했다.

프로그램 구성은 김인중 화가와 건축가인 동생 김여중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돼 예술과 건축, 공간에 대한 입체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여기에 바이올린과 기타로 구성된 Duo A&U의 연주가 더해져, 이야기와 음악이 교차하는 흐름 속에서 관객의 몰입을 끌어올린다.

문의 010-6422-1991, 061-335-0983.

황해은 기자 nab@gjdream.com



박정일 작 '가족'

창작 기반 구축... 예술의 미래 가능성 모색

‘캐릭터 IP 예술, 현재와 미래’전... 30일까지 은암미술관

예술과 산업,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새로운 실험으로서 광주 문화예술의 미래 가능성을 가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시가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은암미술관(관장 채종기)은 케이야르 문화예술교류와 함께 광주 문화예술 생태계에 새로운 흐름을 제시할 전시 ‘캐릭터 IP 예술, 현재와 미래’전을 9월 개막, 오는 30일까지 미술관 1, 2층 전시실에서 진행한다

작가의 창작물을 지식재산(IP)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확장하는 실험적 프로젝트로 기획된 이번 전시는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예술 환경 속에서 지역 청년작가들이 지속 가능한 창작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고,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대 예술계는 ‘창작물을 어떻게 확장하고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전시는 이런 흐름 속에서 작가의 창작 세계를 하나의 자산으로 바라보고, 이를 주체적으로 관리하며 확장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특히 ‘캐릭터 IP 예술’이라는 동시대적 흐름을 공공 전시로 풀어내며, 순수 예술과 산업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시도로 주목된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결과물 자체가 향후 확장을 위한 ‘프로토타입’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전시를 통해 저작권 기반의 확장 가능성을 검토하고, 국제 교류와 연결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포트폴리오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는다. 이는 기존의 전시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과 달리, 전시 이후까지를 설계한 단계적·연속적 모델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전시에는 광주 지역 작가 최대 13명이 참여해 IP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신작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전시 이후에는 지역 갤러리와 연계한 확장 전시가 이어지고, 중국, 홍콩, 대만, 일본 등 아시아권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작품 포트폴리오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까지 추진된다. 이를 통해 지역

작가들의 실질적인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전시는 시민들에게도 동시대 예술의 새로운 감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이와 부모, 연인 등 다양한 관람층을 고려한 기획을 통해 보다 친근하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현대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3000명 이상의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예술 향유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작가로는 류규삼, 박정일, 손연우, 엄기준, 윤석문, 이다예, 이우환, 이수진, 이요범, 이지수, 이한범, 임은혜, 정지민 씨 등이다.

채종기 관장은 이번 전시에 대해 “지금의 예술은 작품 제작에 머무르지 않고, 창작의 가치가 어떻게 확장되고 연결되는가 중요한 시대에 들어섰다”며 “이번 전시는 지역 청년작가들이 자신의 창작 세계를 IP라는 언어로 재구성하고, 그것을 통해 세계와 만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가 가진 예술적 자산이 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입장료는 무료.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